

HEADLINE NEWS

주거지 선정시 '직장과의 근접성' 을 매우 중요시 (미국 쏘도시)

미국 'Census Bureau'에서 실시한 '2001 American Housing Survey' 결과, 많은 미국인들은 주거지 선정시 '직장과의 근접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2,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31%가 '직장과의 근접성'을 주거지 선정의 주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10년 전 비율인 24%보다도 꽤 높은 수치다.

이에 조사기관은 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통근시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통근시간이 1980년 조사에 비해 40초 증가한 22.4분으로 나타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3분 가량이 증가한 25.5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거지 선택에 있어 '친구 및 친척집과의 근접성'도 10년 전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story.news.yahoo.com/news?tmpl=story2&cid=676&u=/usatoday/20021224/ts_usatoday/4725207&printer=1)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안내전화시스템 운영 (미국 Beloit 市)
- ② 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도청소법 강화 (뉴욕)

도시환경

- ③ 태양열로 인공비람 만들어 발전 (호주: 밀두라)

도시교통

- ④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어린이 교육용 웹사이트 개설 (애틀랜타)
- ⑤ 휴대전화나 PC로 현재의 버스위치를 알려주는 버스운행 정보서비스 실시 (동경)
- ⑥ 런던지하철 민영화협정 체결 (런던)
- ⑦ 인터넷을 통해 교통량 자료 및 교통정보 제공 (뉴햄프셔주 콩코드 / 런던)

사회복지

- ⑧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공표 (토론토)
- ⑨ 장기의료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미주리주: 제퍼슨시티)

행정재정

- ⑩ 행정효율성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워싱턴 D.C.)
- ⑪ 다운타운 방문객을 위해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구역 지정 (미국: 롱비치市)

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안내전환시스템 운영 (미국: Beloit市)

미국 위스콘신주의 Beloit市에서는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주거지역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설작업 일정을 미리 알려 사전에 작업구간 도로상의 차량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화시스템은 갑자기 눈이 내려 제설작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계획된 제설작업을 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미리 차량을 옮김으로써 주차차량으로 인해 제설작업이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시간당 500통화를 할 수 있으며, 제설작업의 시간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도 차량이 견인당하는 불편을 없애주고 있다. 市는 이 시스템을 3년 전에 구축해, 지금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이용해왔다.

(tic.engr.wisc.edu/crossroads/xrds_2003_1.pdf)

② 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도청소법」 강화 (뉴욕)

미국 뉴욕市는 최근 보도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던 市의 「보도청소법(Littering Law)」을 개정하고, 보도를 어지럽히는 위반자나 보도청소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물 소유주들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市는 그동안 보도상의 눈과 얼음을 치워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물소유주들이 대부분 보도를 청소하기보다는 어쩌다 한번씩 부과되는 벌금 50달러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市의 보도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도청소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보도청소법」에 따르면, 보도를 쓰레기로 어지럽히는 위반자에게는 처음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향후 12개월 내에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 번째 위반자에게는 최소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건물 앞 보도 위의 얼음과 눈을 치우는 보도청소 의무를 소홀히 한 건물소유주에게는 처음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벌금이 가중되어 12개월 내에 세 번째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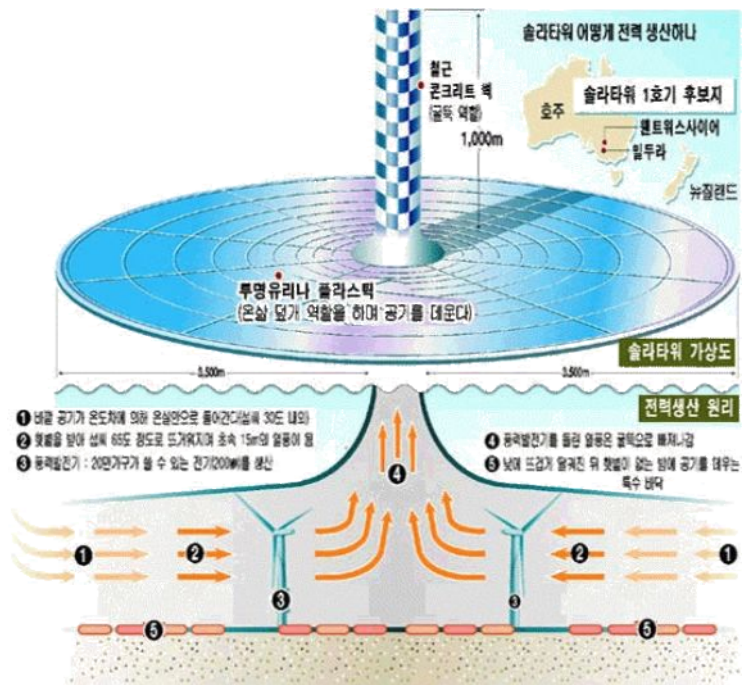
(www.nyc.gov/html/om/html/2003a/pr008-03.html)

③ 태양열로 인공바람 만들어 발전 (호주: 밀두라)

호주에서는 태양열로 인공바람을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높이 1km의 거대한 태양에너지탑인 「솔라타워」를 건설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 「솔라타워」 건설업체는 호주의 공기업인 엔바이로미션社로서 2003년도에 밀두라(Mildura) 또는 웨스트위스사이에 1호기를 착공해 2005년경 완성하고, 2010년까지 4기를 더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基)당 전력 생산용량은 200MW로, 우리나라의 전주시 인구에 해당하는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수력발전소인 소양강댐의 전력 생산능력과 같다.

전력을 생산하는 원리를 보면, 뜨거운 공기가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는 길목에 풍력발전기를 세워 발전하는 것이다. 직경 7km의 온실은 공기를 데워 섭씨 65도 정도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단지 햇빛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쓰레기 등의 발생 염려가 없다. 온실에서 뜨거워진 열풍은 태풍의 풍속에 가까운 초속 15m로 별도의 장치 없이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고속의 열풍이 풍력발전기를 돌린 뒤 굴뚝으로 빠져나가면 새로운 찬공기가 다시 온실로 들어와 데워지는 것을 반복한다. 낮에는 햇빛에 의해, 밤에는 낮에 데워진 온실 밑바닥의 특수 구조층에 의해 공기가 데워진다.

지금까지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밤에 가동이 어렵고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고르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호주 정부는 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 90만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C Focus, 제106호, 2002. 10. 25,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권)

4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어린이 교육용 웹사이트 개설 (애틀랜타)

미국 조지아(Georgia)주 애틀랜타(Atlanta)시의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Georgia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GRTA)'는 최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어린이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Little Red School House」라 불리는 이 웹사이트는 어린이들에게 카풀 및 대중교통 이용의 필요성을 교육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어린이들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얻게 되는 장점을 설명하는 책자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에서 전철 혹은 버스 등의 운행 여부에 따라 교통흐름이 변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교통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교통용어 찾기 퍼즐게임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www.grta.org/news_section/current_articles/shoolhouse_122302.htm)

5 휴대전화나 PC로 현재의 버스위치를 알려주는 버스운행정보서비스 실시 (동경)

일본 東京都 교통국은 버스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버스운행정보서비스를 2003년 1월부터 시작했다. 都營버스의 거의 쏘노선에 해당하는 129개 노선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또는 PC로 현재의 버스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도착예상시간을 검색할 수 있다. 정보이용료는 무료이며, 통신료는 개인 부담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홈페이지(<http://tobus.jp>)에서 정류장을 검색하면 행선지별로 버스의 현재 위치나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이 표시된다. 都교통국에 따르면, 都營버스 이용자는 하루 평균 약 63만명 정도 된다.

(아사히신문, 2003. 1. 8) (mytown.asahi.com/tokyo/news02.asp?kiji=1731)

6 런던지하철 민영화협정 체결 (런던)

영국 정부와 민영사업자간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런던 지하철의 민영화협정이 2002년 12월 31일 체결되었다. 이번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영역의 서비스에 대해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공적 투자를 줄이고, 운영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데 있다. 민영화의 방식을 살펴보면, 런던지하철을 3개 노선권으로 구분해 민간 컨소시엄에 입찰하고, 민간 컨소시엄은 향후 15년간 노후시설의 대체 및 시설 개선에 약 30조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향후 30년간의 영업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1개 지하노선권의 입찰이 완료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노선권에 대한 입찰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런던지하철공사(London Underground)는 지하철의 운전자와 역사(驛舍) 요원들만 관리하게 된다.

민영화협정을 맺은 민간컨소시엄은 7년 반의 첫 계약기간 후 향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민간컨소시엄은 매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시불로 수입금을 받게 되며, 평가 기준보다 나은 경우 더 많은 수입을 획득하게 된다. 만약 운영성과에 의한 수입금이 노선 영업이윤을 훨씬 초과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상 지급하게 된다. 런던 전체 지하철을 3개 노선권, 즉 2개의 지하노선권 및 1개의 반지상노선권으로 나누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지하노선권은 피카딜리(Piccadilly), 주빌리(Jubilee), 노던(Northern line) 등 3개 노선으로서, Amey(영국 경영관리회사), Jarvis(영국 철도유지관리회사), Bechtel(미국기술회사) 등의 입찰 컨소시엄은 1년 내에 열차운행지연율을 10% 감소하고, 2011년까지 노선신호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번 민영화의 기대 효과로,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 효과, 지하철 운영효율 개선, 방만한 지하철 운영인력 감축 등을 꼽고 있다. 한편, 민영화협정 내용상 역할 및 책임 조정과 지하철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런던市長이 지하철노조를 지지해 민영화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써 민영화 추진이 6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다. 이번 민영화협정은 서울지하철의 체제개혁, 효율화,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팀 신설, 서울지하철 관계법규 정비, 구조조정 전략계획 수립 등 서울지하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news.bbc.co.uk/2/hi/business/2617703.htm)

(news.bbc.co.uk/2/hi/business/2385983.htm)

(news.bbc.co.uk/2/hi/business/2284758.htm)

(www.arup.com/rail/Html/Projects/LULPPP1.htm)

(news.bbc.co.uk/2/hi/business/2617703.htm) (www.amey.co.uk)

7 인터넷을 통해 교통량 자료 및 교통정보 제공 (뉴햄프셔주: 쿡코드 / 런던)

미국 뉴햄프셔(New Hampshire)주 교통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주전역의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량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 부동산 개발업자, 학생, 언론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자료를 구하고 이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웹사이트는 지도를 보면서 필요한 지점의 교통량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지역별로도 교통량 자료를 구분해 놓아 이용자가 손쉽게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량 관련 전문 용어를 설명해 놓은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량 조사보고서 또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세계에서 접속빈도가 높은 검색엔진 중 하나인 구글에 따르면, 런던지하철 홈페이지가 영국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로 꼽혔다. 최근에는 교통정보에 대한 대화식 정보전달 기능을 하는 TubeGuru(www.thetube.com/guru)에 대한 이용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webster.state.nh.us/dot/media/nr2002/nr122002traffic.pdf)

(www.thetube.com)

8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공표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2003년도 실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98년 아동·청소년 실행위원회를 설립했고, 위원회는 2000년부터 매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동복지 향상 실행계획은 토론토시 아동현장의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도 실행계획은 2002년도에 실시된 아동실태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1,500가족에게 확대 공급한다. 둘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산모 1,400명에게 임신·출산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넷째,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신규 여가 프로그램을 100개 개설해 최대 1만명 이상에게 혜택이 가도록 실시한다. 다섯째, 지불 가능한 수준의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여섯째, 보육비 보조를 2,000명에게 확대한다. 일곱째, 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취약지역 어린이 400명에게 제공한다.

(stratus.city.toronto.on.ca/inter/it/newsrel.nsf)

9 장기의료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미주리주: 제퍼슨시티)

미국 미주리(Missouri)주는 주민들의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장기의료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주민들이 장기의료시설을 선택할 때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웹사이트는 시설들에 대한 최근의 시설점검 결과를 포함한 건강관리시설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의료 시설들의 위반사항들과 고객들의 불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질 높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www.dhss.state.mo.us/showmelongtermcare)

행정효율성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Washington D.C.)는 향후 5년동안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 예산, 조달, 자산 관리, 인적자원 등 업무분야 전반에 대해 「행정 및 서비스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기존의 업무과정을 완전히 재편하고, 산재된 개별업무시스템을 통합하게 된다. 이를 위해 市는 이미 업무분석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사업 추진 중에는 매 3개월마다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피드백 과정이 있으며, 새로운 업무시스템의 개시 전에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진다. 市는 이 사업이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fcw.com/geb/articles/2002/1216/web-erp-12-18-02.asp)

다운타운 방문객을 위해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구역 지정 (미국: 롱비치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Long Beach)시는 다운타운 방문객들이 무료로 무선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최근 지정했다. 민간 정보통신업체의 후원으로 가능해진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음식점, 커피숍 등과 같은 특정지점을 중심으로 무선네트워크 접속카드가 장착된 랩탑 컴퓨터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월 서비스 이용료는 市가 부담한다. 이용자는 최대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市는 조만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롱비치 공항 등 다른 주요 활동거점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www.fcw.com/geb/articles/2003/0106/web-beach-01-10-03.asp)